

우리 시대의 마을회관은?



* 정낙추 만화작가는 태안문화원장으로 일한다. 시인이자 농부다. 전통소금인 '자염'을 복원했고, 충남작가협회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흙빛문학』에 대하소설 『풀의 역사』를 연재 중이며, 시집 『그 남자의 손』과 『미움의 힘』, 소설집 『복사는 울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차례

정낙추 만평

우리 시대의 마을회관은?

3

편집인의 글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 구자인

4

문화로 만나는 마을이야기 |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공주 미래도 스튜디오, 송국진 씨 | 이준표

10

특집 | 마을회관: 농촌공동체 복지의 중심공간

마을회관, 마을공동체 복지의 중심공간 | 배영동

19

농촌공동체를 위한 마을회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 김광선

26

패적인 21세기형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위한 표준모델 | 이영호

41

마을회관에서 노인정으로, 이젠 무엇으로 쓸 것인가 | 김영우

50

마을회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니 | 서광수

57

겨울철 우리 마을회관 이야기 | 송점순

64

이런 마을회관이 필요합니다 | 송유미

69

마을소개 |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천내습지를 품은 생명의 터, 닥실마을 | 정소영

78

사계절 아름다운 호수풍경마을 | 윤수관

84

지상중계 | 홍성군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종합토론회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장곡의 미래

90

정책동향

농식품부-지자체 정책협력 거버넌스 '농촌협약' 도입 | 조영재

98

공익직접지불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황, 기대, 전망 | 강마야

101

충남형 사회적 농업 모델 개발 방안 | 김기흥

104

서산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 오은정

107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현황과 연락처

112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구자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19와 현대 사회의 문제점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셈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쉽게 생각했었지요. 알고 보니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2012년에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이라더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에 ‘비상사태PHEIC’를, 3월 11일에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거의 3개월에 접어들도록 매일 뉴스에서 방송하니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성이 너무 높아진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크게 다가옵니다. 해외여행도 많아지고, 직장·학교와 주거의 분리로 장거리 출퇴근과 통학이 많은 도시형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읍내 5일장 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서울이나 도시 구경은 1년에 한두 번 있을 정도였지요. 명절 대이동을 회귀본능이라 할 정도로 전국적 이동은 명절 때 정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빠른 이동, 많은 이동이 당연해졌을까요. 어딘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갈 수 있으니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함께 따라 다니는 셈이지요.

또 종교집회는 물론이고 주민교육 같은 집단 행사가 아주 많다는 것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신천지 같은 신흥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일요일이면 이렇게 반드시 모여야만 하는지도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주민교육도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회의는 화상회의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동물 전염병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반복될 우려가 큼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일하는 방식’도 ‘모이는 문화’도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마을공동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편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전국의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공동체의 힘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대구에 직접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농산물이나 성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학교 개학이 미루어져 쌓여 있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꾸러미로 공동구매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착용했던 노란 마스크도 대전의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라 하여 화제가 되

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확인도 하고, 함께 사는 도농공동체의 관계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던 농촌 마을의 인심이 아직 살아 있음도 확인합니다. 또 선진국이란 나라에도 있는 ‘사재기’가 한국에서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웃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인 민낯도 보지만 마을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면 코로나19 같은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명사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천안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마을만들기 충남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로 올해 6월말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첫 주에 충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가을만 되면 돼지열병이니 구제역이니 조류독감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아예 이번 기회에 6월말이나 7월초로 옮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충남대회도 코로나19 문제로 준비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다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개최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7월 중하순으로 연기하거나 당일 행사로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올해 2~3월에 예정했던 많은 행사들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3월로 예정했던 상반기 직무연수는 4월초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개 시군 순회방문은 대폭 축소하거나 소수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광역 마을동아리

육성사업도 설명회와 창안학교를 생략하고, 상호대면 심사도 서면 심사로 대체했습니다.

재택근무 방식도 도입하고, 5인 이상 모이는 회의에는 참석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시군에는 출장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시군 센터에서도 농한기 주민교육을 거의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령시처럼 1월에 발빠르게 개최한 곳만 무탈하게 넘어갔고요. 농식품부의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모임을 제대로 못하니 진행도 어렵고, 새로운 공모사업 신청 준비도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가능성이 사라지니 모든 일정이 틀어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될 우려가 큼니다. 전국의 모든 중간지원조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센터 소속 청춘남녀들은 더 고민이 크겠지요.

대신에 『마을독본』 통권 11호 발간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또 통권 1~4호의 특집 주제를 묶어서 단행본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통권 1~4호 특집 주제는 ‘주민조직(1호), 공동재산 관리(2호), 마을자치규약(3호), 회의와 기록관리(4호)’ 등으로 마을만들기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발간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기에, 작년에 기획하여 올해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올해 충남대회에 맞추어 7월중에 발간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코로나19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고, 미국과 일본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남은 비교적

잠잠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을을 지키면서 공동체 활동도 계속 진행하고,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성찰의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니 개나리와 진달래꽃도 피고, 곧 벚꽃도 피겠지요. 온갖 녹색을 모두 볼 수 있는 계절이니 자연도 즐기시고, 이웃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의 재미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로 만나는 마을이야기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지만,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청년, 새로운 일과 문화를 만드는 청년, 마을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 애쓰는 청년. 저마다의 도전이 어떤 즐거움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봅니다.